



보도 일시	2023. 1. 31.(화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3. 1. 31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 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7)

< 산업·에너지 >

한-UAE “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” 보고

- 대통령 주재, ‘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’ 개최 -
- ‘셔틀 경제협력단’ 파견으로 성과 이행을 현장 지원하기로 -

-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.31.(화),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‘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’에 참석하였다.
 - 금번 회의는 한-UAE 수교(1980년)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UAE 국민 방문(’23. 1. 14 ~ 1. 17, 아부다비·두바이) 계기에 도출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,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 - 이창양 장관이 “한-UAE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”을 발표하고, 이어서 ‘경제사절단(101개사)’으로 동행했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UAE 투자유치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.

한-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

- 이창양 장관은 이번 UAE 국민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공고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양국이 당면한 對내외 도전과제들을 함께 극복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 구축의 모멘텀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.

□ 특히, 이 장관은 한-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,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, 현지 수출시장 개척,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기업 위상 제고 등 “1석 4조”의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.

① (협력 채널 구축) 총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을 통해 12개 부처가 협력 채널을 신설·확대하여 한-UAE 간 협력 채널을 구축·공고화하였으며,

* (신설) 에너지, 수소, 무역투자, 기후변화, 지식재산, 콘텐츠, 방산, 소비재 등 8개 분야
(확대) 산업·첨단기술, 수자원, 우주, 원자력수출허가, 스마트인프라·모빌리티·수소도시생태계, 중소기업 등 8개 분야

② (비즈니스 기회 창출) ‘정상 회담’과 ‘비즈니스 포럼’ 등 계기로 에너지, 신산업, 문화, 농수산, 방산, 스마트인프라 등 8개 분야에서 61억불 이상으로 추산되는 총 32건 MOU·계약 등을 확보하였다.

③ (현지 수출시장 개척) ‘비즈니스 상담회’ 계기에 원전·에너지, 신산업,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사를 포함한 총 141개의 양국 기업이 참가하여 계약 목표액 약 1,100만불을 달성하였다.

* UAE 측의 높은 관심으로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상담 257건(140건, +83%), 계약 목표액 1천 1백만불(7백만불, +57%) 달성

④ (정상순방 후광효과) MOU 체결, 수출 상담 등과는 별도로 금번 정상순방 계기에 기업 자체적으로 인프라 수주 진전(A사) 뿐 아니라, UAE 외 제3국에서 투자를 유치(B사)*하는 등의 후속 성과가 이어지기도 하였다.

- (A사)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기업 총수의 '경제사절단' 참가 일정에 맞추어 UAE '하일&가사 가스전 육상설비' 건설 전 서비스 계약(27백만불) 낙찰통지서 접수
- (B사) 클라우드 전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언론에 MOU 성과 보도 이후 영국의 유력 투자사와 투자유치 논의 중 (약 1.5억불 규모)

정상 경제외교 성공요인

< 한-UAE 협력 구조 >

UAE

① 탈석유 정책
+ 풍부한 재정 여건

② 한국에 대한 UAE의
깊은 신뢰

대한민국

③ 첨단 및 주력
산업 포트폴리오 형성

④ 정상의 적극적 지원 의지 + 양국 정상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

① UAE의 탈석유 정책 및 풍부한 재정 여건

- UAE는 1920년대 일본의 양식진주 개발로 인해 경제 기반이던 천연진주 산업이 붕괴된 이후, '60년대 원유 개발로 급성장하였지만, 최근 기후변화·脫탄소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,
 - * UAE는 첨단산업 육성, 무역거점 강화 등 “미래 50년 프로젝트” 발표(21.9)
- ‘러-우 사태’ 이후 유가 급등으로 재정 수입이 30배 증가하고, 카타르 월드컵('22) 등 특수로 인해 등 풍부한 재정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.
 - * 이를 통해 아부다비투자청, 두바이투자청,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를 통해 非석유 분야 및 산업다각화 등에 투자 확대 전망

② 우리기업과 대한민국에 대한 UAE의 높은 신뢰

- 열악한 사막에서 코로나19 등 여러 악조건 가운데 바라카 원전을 기한 내 완공(1, 2호기 상업운전 중, 3호기 '23년, 4호기 '24년 완공 예정)하고,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,
- 건설·인프라, 발전·해수담수화 등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성실한 수행 실적이 축적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

③ 첨단·주력 산업을 겸비한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 형성

- UAE 내에는 대한민국이 반도체, 배터리, 화학, 자동차 등 단기간 산업 다각화에 성공하고, 세계 수준의 제조 경쟁력*을 갖춘 점에 대해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으며,
 - *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('21년 UNIDO) : 반도체, 배터리, 화학 등 전 산업 상위권
- 최근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등 글로벌 위상 강화, 한류 확산(K-Pop, K-드라마 등) 등으로 UAE 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증가하고 있다.
 - * 과거 건설, 플랜트, 에너지 등 우주에서 정보통신, 화장품, 식품, 의약품 등으로 업종·품목이 다양해지고 對UAE 직접투자도 증가 추세

④ 우리 정상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양국 정상 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 형성

- 금번 순방 기간 중 대통령께서 “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”으로 자임하고, 정상회의 등 계기 마다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,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280km 떨어진 바라카 일전에 동행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한 점도 금번 경제외교 성과 도출에 밑받침이 되었다.

정상 경제외교 성과 평가

- 금번 UAE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주관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(1. 19.(목) ~ 1. 26.(목)) 결과, 참가기업들의 90% 이상(92.3%)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.

- (C사, D사 등) UAE 파트너와 '23년 상반기 중 합작법인 설립 예정
- (E사) UAE의 MOU 체결 기업과 8천만불 규모 계약 체결 ('23. 1. 29)
- (F사) 상담회·시식회 등을 계기로 UAE, 쿠웨이트 기업과 계약 체결 논의

- 한편, 지난 1. 25.(수)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‘한-중동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(단장 : 통상차관보)’ 회의에 참가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도 이번 대책에 대부분 반영하였다.

< 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주요 건의사항 및 대책 요지 >

-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회 제공 : 소규모 “셔틀 경제협력단” 파견
- UAE 현지 지원체계 구축 : 지사화(무역관),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
- 대·중소기업 공동진출 : 한-UAE 경제협력위(무협-UAE연방상의)를 통해 적극 지원
- 수소 모빌리티 개발 실증 R&D 지원 : 국제 공동 R&D 과제로 추진 검토
- 신산업 분야 인증 지원 협력 등 : ‘해외인증지원단(국표원)’을 통한 인증 협력 지원

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

정책
목표

‘新중동 붐’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

이행
방안

① 한-UAE
경제협력 채널 가동

- 양국 관계부처 간 성과 공동관리
- 성과 이행 애로 발굴·해소

② 전 부처의 영업사원화

- ‘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’ 설치
- ‘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’ 상시 지원

③ 프로젝트
밀착형 이행 지원

-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
- 유형별 소규모 ‘셔틀 경제협력단’ 가동

④ 新중동 붐 조성 및
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

- 타 중동국가로의 협력 범위 확대
- 중앙아, 아프리카로 경험 모델 확산

① 한-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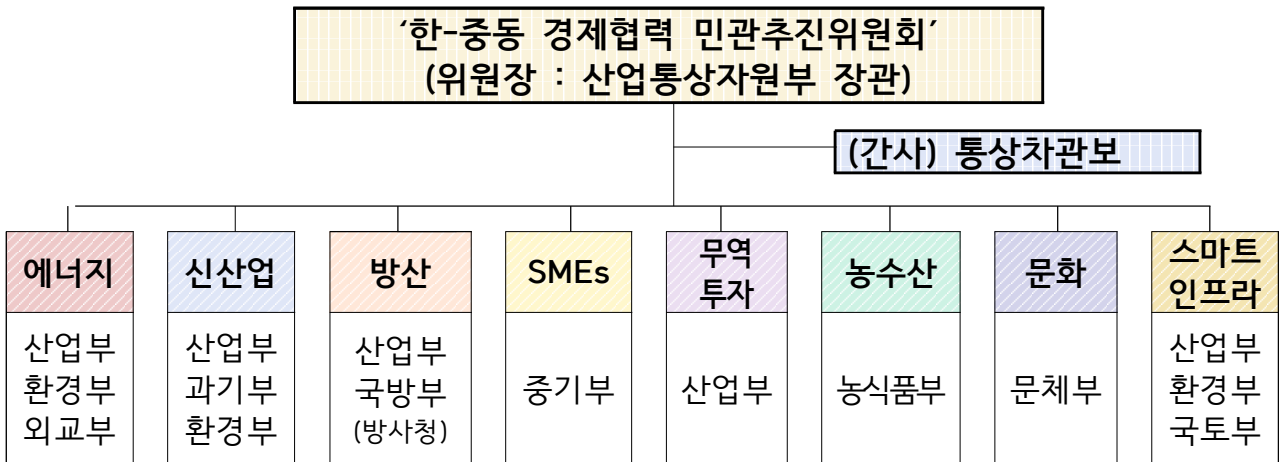
- 금번 경제외교 성과사업들은 신설 또는 확대된 한-UAE 정부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별 소관부처에서 전담하여 UAE 측 상대 부처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.
 - 에너지협력 분야는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간 ‘제1차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파트너십 회의’를 개최하고 「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」, 「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 파트너십」, 「넷 제로 가속화」 등 기관·기업 간 MOU 이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.
 - 산업협력 분야는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첨단산업기술부 간 체결된 「전략적 산업·첨단기술 파트너십 MOU」에 따라 상반기 중 4개 작업반(디지털전환, 모빌리티·항공우주, 소재·부품, 공급망(의료기기 등))을 통해 양국 기업 간 MOU 등의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하반기 ‘장관급 전략회의’를 개최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금번 순방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경제부 간에 체결된 **「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(TIPF)」**를 통해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, 해소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.

② 전 부처의 영업사원화

-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-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발족한 **‘한-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’**를 금번 UAE 경제외교 성과사업을 포함하여 **‘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(위원장 : 산업부장관)’**로 확대·개편하였다.

< ‘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’ 구성(안) >



- 또한,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동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**‘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’**과도 긴밀히 협업하여 금번 성과 사업들을 상시적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.

③ 협력 유형별 프로젝트 밀착형 이행 지원

- 금번 **계약**이 성사된 2건(국제공동비축, 방산)은 **이행 상황을 모니터링**하고, 해당 정부 협의채널 통해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한편,
- 기업 등 주도로 확보된 30건의 MOU 등은 4가지 유형으로 프로젝트별로 그룹화하여 프로세스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.

< MOU 유형별 현황 및 지원방안 >

유형	프로젝트명	지원방안
①구체적 MOU	수소 모빌리티, 스마트팜, 바이오 생산공장 등 총 8건	지사화, 마케팅, 법률 서비스 등 프로세스 단계별 지원
②초기단계 MOU	콘텐츠 분야 협력, 스마트 관광 등 총 9건	상호 교류 확대, 기술시장 자문 등 MOU 구체화 지원 및 유도
③메가프로젝트 MOU	저탄소 수소협력, 자발적 탄소시장 등 총 8건	수출금융, 인증 협력, 기술 지원 등 사업 수주 및 공동 수행 지원
④지원기관 MOU	민간 협회 간 경험위 협력, 투자 파트너십 등 총 5건	협력 확대 여건 조성 지원

- 특히, 유형별 소규모 ‘셔틀 경제협력단’을 신설하여 UAE 진출에 관심 있는 대·중소기업, 지원기관, 관계부처 등이 **원팀(One Team)**으로 UAE를 방문하여 MOU 등 성과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·추진할 뿐 아니라, 향후 타 중동국가로도 성과 확산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.

* 무역협회와 UAE 연방상의 간 체결한 「한-UAE 경제협력위원회 협력 MOU」 등 연계

④ ‘新중동 붐’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

-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 협력모델을 카타르, 오만 등 중동국가 및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이며,
- 향후 정상 경제외교 대상국가와의 「**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**」 등을 활용한 **전략적 협력 채널**을 신설 또는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 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1)
	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310)
		담당자	서기관 이은희 (044-203-4312)
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규성 (044-203-5320)
		담당자	서기관 유재영 (044-203-5125)
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 장 이준범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환 (044-215-7636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준배 (044-202-4620)
	담당자	주무관	김홍석 (044-202-4631)
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	책임자	과 장	조은정 (02-2100-7859)
	담당자	행정관	정재희 (02-2100-7749)
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	책임자	과 장	권도연 (044-203-2561)
	담당자	사무관	김휘경 (044-203-2566)
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준한 (044-201-2411)
	담당자	사무관	차희수 (044-201-2415)
환경부 물산업협력과	책임자	과 장	문제원 (044-201-7631)
	담당자	사무관	이상훈 (044-201-7634)
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3516)
	담당자	사무관	이혜인 (044-201-3517)
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안세희 (044-201-3526)
	담당자	사무관	간인숙 (044-201-3529)
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봉덕 (044-204-7500)
	담당자	사무관	배주형 (044-204-7509)
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오지영 (044-204-7550)
	담당자	사무관	박승호 (044-204-7556)
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한재정 (02-2079-6420)
	담당자	중 령	차 빈 (02-2079-6432)
특허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정대순 (042-481-5063)
	담당자	서기관	황상동 (042-481-8659)